

관련지식



연합군 사령관도 우리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반도의 부속 도서 중 크고 작은 섬만을 열거했을 뿐 독도와 같은 무인 도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 마라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마라도가 일본영토는 아니다!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 :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항복 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시켰다.

관련지식

독도의 날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로, 10월 25일이다. 독도의 날 제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해 이뤄졌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0km 해상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8월 27일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의 공동 주최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의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당시 국토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으로,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관련지식

독도의 날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로, 10월 25일이다. 독도의 날 제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해 이뤄졌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0km 해상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8월 27일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의 공동 주최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의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날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당시 국토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으로,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독도 문제

문헌상의 기록

독도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는 화산섬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의 동해상에 우산국(于山國)이라 불리는 소규모의 왕국이 존재하다가 512년 이사부(異斯夫)에게 정벌되어 신라에 복속되었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을 이루었던 섬으로, 이후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고문헌과 지도 등에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였는데, 울도군이 관할하는 섬 가운데 석도(石島)가 곧 독도이다. 석도는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울릉도의 초기 이주민들은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다. '독도(獨島)'는 '독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1906년 울릉군수가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되었다.

독도 문제



일본의 영유권 주장

한편 일본은 한국이 독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1600년대부터 자국민들이 울릉도 근처에서 어업을 하며 오가다가 한국보다 먼저 독도를 발견하여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또 《삼국사기》에 언급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는 등 한국의 고문헌 기록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등 자국의 고문헌에는 오히려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고 강변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으며, 1905년 2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시마네 현 오키(隱岐) 군에 편입하였다. 이후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1951년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맺은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한반도와 그에 딸린 3167개의 도서(島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 조약에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일본은 이를 근거로 삼아 1910년 이후에 강점하였던 땅을 반환하되, 독도는 그 이전부터 자국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 문제

양국의 대응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隱岐島]이 157.5km나 떨어져 있어 지리적 근접성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1952년 1월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고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함으로써 한국 영토임을 선포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평화선 안으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곧바로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3년 4월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상륙한 일본인들을 몰아냈으며, 1954년 1월 '한국령(韓國領)' 영토 표지를 설치한 데 이어 8월에는 무인 등대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9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였다. 1956년 한국 경찰이 독도 경비 임무를 인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1981년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에 이어 1993년 레이더 기지, 1997년 500+급 선박의 접안 시설과 어민 숙소, 1998년 유인 등대 등을 설치하였다. 일본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공식 주장하면서 외교적 공론화를 부추겨 분쟁 지역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1996년 중고등학교용 검정 지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데 이어 2002년에는 한국이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기사가 실린 고등학교용 역사 교과서가 검정 통과되었다. 2005년에는 시마네 현 의회에서 100년 전에 독도의 일본 편입을 고시하였던 날(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경상북도 의회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일본 정부는 2008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중학교 사회과(지리·역사·공민)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0년 이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이 검정에서 통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도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적 공론화는 자제하는 한편, 국제법상 평화적 지배를 지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판단하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땅!



독도관련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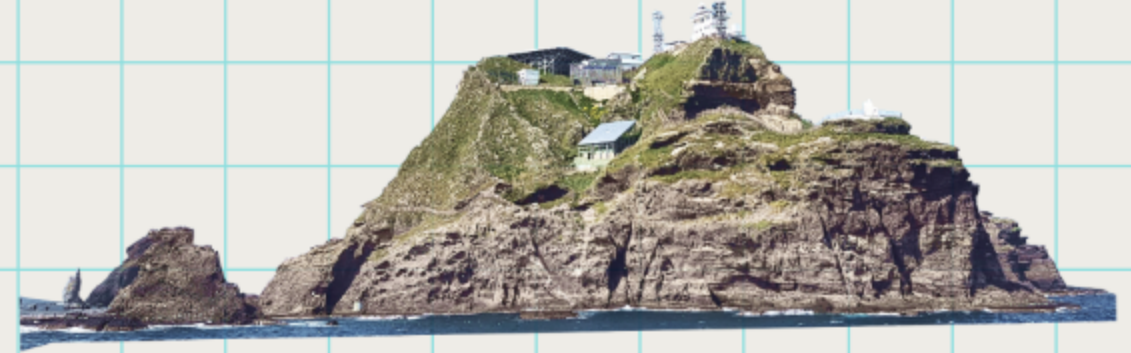
1.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백리/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독도는 우리 땅
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천삼백/ 독도는 우리 땅
3.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대합실/ 17만 평방미터 우물하나 분화구/ 독도는 우리 땅
4.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독도는 우리 땅
5.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독도는 우리 땅

소감 및 느낀점



영토와 독도와 관련하여 많은 문헌자료를 찾아보며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독도에 관련하여 더 흥미로운 점에대해서 알 수 있었다. 독도에 대해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에 경의를 표하며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독도에 대한 자부심이 들게 되었고 독도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부터 이렇게 큰 관심으로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독도에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치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

sub title

22303328 허재호